

[보도자료] 대학 교재도 이젠 쿠팡에서 구매하세요

2019. 3. 25.



- 대학생 필수 지참서 30만 여종 모아 제안
- 전공별 맞춤 서적, 스펙쌓기, 필독 교양도서 카테고리 나누어 선택

2019. 3. 25. 서울 – 쿠팡(대표 김범석, www.coupang.com)은 대학생 고객들을 위해 도서/음반/DVD 카테고리 내에 ‘대학교재관’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.

대학교재 테마관은 대학생 필수 지참서 30만 여종을 모아 선보인다. 전공별 맞춤 서적, 스펙쌓기, 필독 교양도서 카테고리로 나누어 원하는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.

‘전공별 맞춤 서적’ 카테고리에서는 경상, 사회과학, 공학, 예체능 등 11개의 전공에 따른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다. ‘스펙쌓기’ 카테고리에서는 수험서&자격증, 취업관련, 어학연수 관련, 투자 관련 책들을 ‘대학교재 필독도서’에서는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 도서들과 신입생 추천도서를 모았다.

대표상품으로 2016년 멘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1만800원에 구매 가능하다. 이 외에도 유명 대학 전공서적인 ‘맨큐의 경제학’을 2만3400원, ‘서양미술사’를 3만4200원, ‘화성학’을 2만3750원에 판매한다. ‘2019 Win-Q 화학분석기사 필기 단기완성’과 칼 세이건의 ‘코스모스’를 각각 2만3400원, 4만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.

이병희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“학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대학 교재를 준비해야하는 대학생 고객들을 위해 대학교재를 모아 선보이게 됐다”며 “필요한 교재나 참고 서적을 쿠팡에서 구매하면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어 급하게 책을 준비해야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쿠팡은 쿠팡박스 기획전, 쿠팡 ONLY 테마관, 훌데코 전문관 등 계절, 시기별로 만 여종 이상의 관련 상품들을 모아 박람회 같은 라인업의 기획전, 테마관, 전문관을 오픈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